

## 기도

1. 회개로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나눔

1.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2. 당신의 사명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 신앙

### 바이블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가 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가르쳐 줍니다(막8:38)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

에스겔 33장 10-17절 (35장, 258장)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과 돌이키면 살리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10-11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이 쇠퇴하고 망하게 하신다고 말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 사랑, 빛, 긍휼’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쇠퇴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쇠퇴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바른길로 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심판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 주시기 위해 말씀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소용없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12-17절).

먼저 의인이 범죄하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의인이 범죄할 때 죄의 징벌이 오고 육체가 사망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없고, 많은 의를 행할 지라도 죄를 지으면 모든 공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를 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 공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의롭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라도 악에서 떠나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여 죽음을 선포 받은 사람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용서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히10:17, 18).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아무리 악한 죄라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악인으로 여기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겉으로 공로를 많이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실 수 없습니다.

둘째, 의나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나 죄가 자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받습니다(겔18:20).

이스라엘의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어떤 이들은 죄책감에 빠져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지라도 모든 것이 막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로 모든 것을 시작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 사랑, 빛, 긍휼’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의인일지라도 범죄하면 모든 것이 막힘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